

포르투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5
IV. 국제신인도	7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92천 km ²	G D P	2,293억 달러
인구	10.73백만명	1 인 당 GDP	21,632달러
정치체제	공화제(내각책임제 가미)	통화단위	Euro (EUR)
대외정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율(달러당)	0.75

- 포르투갈은 유럽 서남부 이베리아 반도의 서부에 위치한 국가로,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2에 해당하며 약 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포르투갈은 높은 실업률과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으로 산업경쟁력이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및 대외채무가 누적된 데다 정부의 재정관리 소홀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재정위기가 초래됨.
- 2011년 5월 16일, IMF 및 EU는 포르투갈에 대해 7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했으며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조건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6월 5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사회민주당(PSD)이 사회당(PS)을 누르고 승리함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짐. 사회당은 재정위기 발발로 드러난 국정운영 미숙 및 긴축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 불만이 증대된 결과 총선에서 패한 것으로 분석됨.
- 포르투갈은 1986년에 EU에 가입했으며 1999년에 유로존에 가입함.

II. 경제동향

1.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포르투갈 금융부문, 유동성 부족현상 지속

- 포르투갈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부실대출 증가, 국채보유에 따른 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포르투갈 금융부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유럽 은행들에 대해 2012년 6월 말까지 9% 이상의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1 capital ratio)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1년 11월 말 기준으로 포르투갈의 자산규모 기준 4대 은행들은 동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9%의 핵심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해 4대 은행이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자본규모는 총 78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형성

- 포르투갈은 유럽 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역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0년 기준 유럽 경제권이 포르투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인 것으로 나타남. 포르투갈의 주변국인 스페인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26% 및 32%로 나타나 스페인이 단일국가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수출대상국('10): 스페인(26%), 독일(13%), 프랑스(12%), 앙골라(7%), 영국(6%)

* 주요 수입대상국('10): 스페인(32%), 독일(12%), 프랑스(9%), 이탈리아(6%), 네덜란드(5%)

- 특히, 2010년 초 이후 가시화된 유로존 재정위기는 포르투갈의 대외교역 및 경제성장 여건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산업경쟁력 하락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 포르투갈은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 노동시장의 경직성,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2001~10년 중 평균 0.9% 수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 다만, 201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1,632달러로 포르투갈은 고소득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포르투갈 섬유 산업(주력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동부 유럽의 EU 편입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포르투갈의 경상수지 및 실업률 지표 악화현상이 초래됨.
- 또한 1999년에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외부충격에 대한 환율조정 능력을 상실한 데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

□ 글로벌 경기침체 및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8년 말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2010년 초에 발생한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FDI 유입이 위축되었는데, 2008년에 46.7억 달러를 기록한 FDI 유입액이 2009~10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2%, 46% 감소한 27.1억 달러, 14.5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포르투갈의 재정위기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심리 하락으로 FDI 유입액이 2011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FDI 유입규모: 46.7억 달러(2008) → 27.1억 달러(2009) → 14.5억 달러(2010)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상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포르투갈은 2011년에 30/183위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전년과 동일한 상위권 평가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사업개시, 사업허가 및 계약실행 부문에서 경영여건이 소폭 개선된 반면, 그 외 모든 부문에서는 경영여건이 종전 대비 유지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포르투갈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48/183(2008) → 48/183(2009) → 30/183(2010) → 30/183(2011)

다. 정책성과

□ 정부의 재정관리 소홀 등으로 재정위기 초래

- 포르투갈은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수출산업 경쟁력이 취약해 경상수지 적자 및 대외채무가 증가했음. 또한, 포르투갈 정부는 유로존 가입 이후 재정개혁을 소홀히 하고 선심성 재정지출을 남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 재정적자가 누적됐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적자와 정부채무가 급증함.

- 포르투갈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07년 3.2%에서 2010년 9.8%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은 2007년 68.3%에서 2010년 93.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EU의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 TEU)과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서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 이내, 정부채무 비중을 60% 이내로 억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음.

□ 2011년 4월 포르투갈 정부의 요청으로 IMF 및 EU 구제금융 승인

-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채무가 급증하며 2010년 들어 포르투갈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과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으며, 이에 포르투갈 정부는 2011년 3월 긴축재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됨. 긴축재정방이 부결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정부채권 수익률이 9%대로 급등하는 등 재정위기가 더욱 고조됐으며 결국 2011년 4월 8일 포르투갈 정부는 EU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

- 2011년 5월 16일, EU와 IMF는 포르투갈에 대해 7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으며 지원조건은 재정수지 개선(2010년 GDP의 9.8% 수준에서 2011~13년 각각 5.9%, 4.5%, 3.0% 이내로 재정적자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으로 구제금융 지원조건 충족을 위한 각종 개혁이 포르투갈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포르투갈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조건 충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21% → 23%; 2011년 1월부터 적용), 공공부문 임금동결 등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IMF 및 EU의 포르투갈에 대한 2차 실사(2011년 11월 16일)에서 IMF와 EU는 포르투갈의 경제개혁 성과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6월 총선에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PSD)의 승리로 정권교체
- 2011년 6월 5일에 실시된 포르투갈 총선 결과, 제1야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사회민주당(PSD)이 집권여당인 사회당(PS)을 누르고 승리함에 따라 6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
- 이번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전체 의회의석 230석 중 108석(지지율 39%)을 차지한 반면, 사회당은 74석(지지율 28%)을 차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 사회당 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위기관리 미숙으로 포르투갈이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되었고, 이에 따른 긴축 재정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당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사회민주당, 국민당(PP)과 연정구성
- 2011년 6월에 출범한 사회민주당 신임 정부는 과반수 의회의석 확보를 위해 제3당인 국민당과 연정을 구성했으며 이로써 전체 의회의석 230석 중 132석을 차지하는 여당 연립정부가 구성됨.

- 사회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립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연립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각종 긴축 재정정책을 제1야당인 사회당도 지지하고 있는 점도 여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속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IMF 및 EU와 체결한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임 정부가 지속적으로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등을 초래해 향후 신임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불안 잠재

- 포르투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 재정정책 시행, 외국인투자 유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실업률이 급등함. 2008년에 7.6%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은 2009~10년에 각각 9.5% 및 10.8%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12.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실업률 변동추이: 7.6%(2008) → 9.5%(2009) → 10.8%(2010) → 12.4%(2011 예상)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포르투갈의 실업률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포르투갈의 실업률이 EU 평균 실업률인 10%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업률로 인한 사회불안 현상이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 긴축 재정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 및 파업 빈번

-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동결 및 인력감축 등을 포함한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불안정이 초래됨.
- 2011년 11월 12일에는 공공부문 근로자 및 군인을 중심으로 한 약 15

만 명 규모의 시위대가 수도 리스본에서 긴축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이들은 11월 11일 포르투갈 의회에서 통과된 2012년도 긴축 예산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11월 24일에는 포르투갈의 주요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및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주는 대외정책 표방

- 포르투갈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상환을 위해 EU, IMF 등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등 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는 재정위기국 지원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포르투갈 정부의 외채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또한 EU, IMF 등의 금융지원 조건에 대한 포르투갈 국민 불만도 간헐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EU와의 관계악화 방지를 위한 포르투갈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과의 양호한 군사외교관계 유지

- 포르투갈은 NATO 회원국으로, 미국과의 양호한 군사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며 재정위기로 확산되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포르투갈 정부채무는 GDP의 100%에 달하는 높은 수준

- 포르투갈은 유로존 가입 이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의 정부지출 확대,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차

입 증가 등으로 정부채무 규모가 급증했는데, 2007년에 68.3% 수준을 나타냈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이 2010년에는 93.4%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포르투갈의 정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연이어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 여력이 약화되고 포르투갈의 채무상환 여건이 더욱 악화됨.
 - 2011년에도 포르투갈 정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100.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전히 포르투갈의 정부채무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 *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 68.3%(2007)→71.6%(2008)→83.0%(2009)→93.4%(2010)→100.6%(2011 예상)

□ 정부채무 축소를 위한 포르투갈 정부의 자구책 마련 필요

- 2011년 5월 16일, IMF 및 EU가 포르투갈에 대해 7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2011~2012년에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돼 정부채무 디폴트 위험을 일단 넘길 수 있었으나, 포르투갈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은행부문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포르투갈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여전히 15%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포르투갈 정부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포르투갈의 단기간내 경제성장세 회복 가능성도 낮아 재정긴축을 통한 채무규모 축소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 2009년 이후 하향조정 빈번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포르투갈의 재정위기 발발로 정부채무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9년 들어서부터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수차례 하향조정했으며 2011년 12월 기준으로 Moody's 및 Fitch는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S&P는 2009년 1월 21일에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했으며 2010년 4월 27일에는 A+에서 A-로 추가 조정함. 또한, 2011년에는 3월 24일에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두 단계 하향조정한 데 이어 3월 29일에는 BBB-로 추가 하향조정함.
- Moody's는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10년 7월 13일에 Aa2에서 A1으로, 2011년 3월 15일에 A1에서 A3로, 4월 5일에 Baa1으로 각각 하향조정함. 이후 2011년 7월 5일 Moody's는 포르투갈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으로 받고 있어 EU 및 IMF와 합의한 재정수지 적자 감축, 채무 안정화 등이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가 2차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인 Ba2로 하향조정함.

<표 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OECD ^{주)}	C3 (2011.12.) 0등급 (2011.1.)	A (OECD등급 원용) 0등급 (2010.1.)
S&P	BBB- (2011.3.29)	BBB (2011.3.24)
Moody's	Ba2 (2011.7.)	Baa1 (2011.4.)
Fitch	BB+ (2011.11.)	BBB- (2011.4.)

주) OECD는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가입국이면서 세계은행 분류 고속득국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고 0등급을 부여함.

- Fitch는 2010년 3월 24일 및 12월 23일에 포르투갈 정부채무 신용등급을 각각 AA에서 AA-로, AA-에서 A+로 하향조정했으며 2011년 3월 24일에 A-, 4월 1일에 BBB-로 추가 하향조정함. 또한, 2011년 11월 24일에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BB+로 하향조정하여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평가함.

□ 포르투갈 재정위기 발발 이후 국채수익률 및 CDS 프리미엄 급등 지속

- 포르투갈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08~09년 평균 3%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0년 들어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 급증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2010년 3월 소크라테스 전 총리가 의회에 제출한 긴축 재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포르투갈의 국채수익률이 급등함.

- 2010년 3월 평균 8%를 기록한 포르투갈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7월 15일에 17.46%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2011년 9월 1일에는 10.87%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11월 24일에 Fitch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포르투갈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며 12월 1일에는 17.81%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포르투갈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008년 말 이전에는 50bp 이하로 낮게 형성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여 2009년에는 평균 100bp 수준에서 형성됨. 이후 2009년 말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발하고 2010년 들어 남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포르투갈의 금융시장이 불안한 장세를 나타내며 포르투갈 CDS 프리미엄이 연중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0년 1월 평균 90bp 수준에서 2010년 12월 평균 500bp 수준으로 급등함.
- 2011년 들어서도 포르투갈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2011년 7월 18일에는 1,205bp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12월 기준 포르투갈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1,000bp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전액 단기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1년 4월 5일 (북한과는 1975년 2월 22일)

- 양국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 무역, 경제기술, 문화, 투자보장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포르투갈 주요 협정체결 현황

- : 무역협정(1977), 사증면제협정(1979), 경제기술협력협정(1984), 문화협정(1990), 투자보장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1996)

□ 2010년 대 포르투갈 교역규모, 사상최고치 기록

-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대 포르투갈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20.6% 감소한 4.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9년 교역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에는 선박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 포르투갈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140.9% 급증한 11.9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그러나 2011년 1~10월 중 대 포르투갈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2.1% 감소한 7.6억 달러(2010년 1~10월 중 교역규모는 11.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2010년 말 기준 포르투갈은 우리나라의 53위 수출대상국, 86위 수입대상국임.

* 한국-포르투갈 교역규모 추이

: 4.9억 달러(2008)→4.9억 달러(2009)→11.9억 달러(2010)

* 대 포르투갈 수출: 4.1억 달러(2008), 4.3억 달러(2009), 11.1억 달러(2010)

* 대 포르투갈 수입: 0.8억 달러(2008), 0.6억 달러(2009), 0.8억 달러(2010)

□ 해외직접투자현황(2011년 9월 말): 10건, 1.2억 달러(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포르투갈 직접투자실적은 2011년 9월 말 누계기준으로 10건, 1.2억 달러로 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한·포르투갈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411	431	1,110	농산품, 식료품, 화학제품, 의류
수 입	78	63	80	농산품, 화학제품
합 계	489	494	1,190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포르투갈은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정부채무 누적 및 재정건정성 악화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포르투갈 의회의 예산감축안 부결 등의 정치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포르투갈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재정위기가 초래됨. 정부채무 디폴트 가능성이 확산되며 포르투갈의 국제수익률 스프레드와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고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연이어 포르투갈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2011년 12월 현재 Moody's와 Fitch는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1년 4월 포르투갈은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IMF와 EU는 5월 16일 7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함. 구제금융 지원조건은 재정적자 감축으로, 2011년에는 포르투갈의 재정적자폭이 IMF 및 EU가 권고한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들어 긴축 재정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으며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등으로 단기간내 포르투갈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및 채무 안정화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포르투갈 정부가 2차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조사역 최 희 정 (☎02-3779-5711)

E-mail: heej_choi@koreaexim.go.kr